불교계, 네팔 대홍수 피해에 '구호 손길'

재단·동행·더프라미스, 긴급 모금
천태종·총화종 "극락왕생 발원"
불교단체 "온실가스 감축" 촉구

임은호 · 이현희 기자



네팔과 중국 · 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일대를 덮친 기습 대홍수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긴급 모금에 착수하고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사진은 네팔 홍수 피해 현장 모습.
사진 출처=네팔TV 페이스북 갈무리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잇따라 긴급 모금에 착수하고 희생자와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지난 8월 26일 네팔과 중국·티베트 접경 히말라야 일대에 빙하 붕괴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8월 31일 네팔 국가재난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900여 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실종됐다. 교량·도로·수력발전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피해 주민들은 당장 머물 곳과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와 통신이 끊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 접근이 어렵고 추가 홍수 위험도 있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0월 31일까지 '네팔 홍수 피해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액은 생활용품 지원과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를 위한 생계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도륜 스님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6-6410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6334-2208**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도 10월 말까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긴급 모금'을 전개한다. 모금액은 긴급 식량, 의약품, 위생용품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된다. **후원계좌: 농협 301-0366-4563-11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9월 말까지 긴급 모금을 진행하는 한편, 현지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구호단을 파견했다. 구호단은 카트만두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네팔 아동 미래 단체(CFO)와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구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58-910020-26904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2-735-3119**

불교계는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조속한 참사 수습을 기원하는 애도의 뜻도 모았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8월 28일 '네팔 대홍수 참사에 대한 애도문'을 내고 "네팔은 부처님께서 나신 룸비니가 자리한 땅이자 한국불교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곳"이기에 "지금 네팔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멀리 있는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도 9월 1일 애도문을 통해 "피해 지역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니며 사부대중 모두의 아픔"이라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일심으로 발원하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 각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 9곳은 8월 28일 '히말라야의 무너진 빙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제하 애도문을 통해 "이번 참사는 일반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와는 다른 양상의 복합재난"이라며 "탄소중립만 말하기보다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9월 5일과 8일 현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호 활동을 펼쳤다.



'2026 VIYA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성료

(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협회장 원영 정사)는 8월 29일 서울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2026 VIYA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 댄스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중등부 12팀과 고등부 10팀 등 모두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접전 끝에 중등부 대상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상은 대구 영신중 '플러스 투'가 차지했다. 고등부 대상인 진각종 통리원장상은 서울 명지고 '비트(beat)'가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동방불교대,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

동방불교대학은 9월 1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보현장학회장 자운 스님, 서울강북교구 종무원 선우회 회장 성해 스님이 후원했다. 최우수상에는 불교학과 태산 스님과 범수 스님, 범패학과 현담 스님과 명안 스님이 선정돼 총무원장 상진 스님으로부터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임은호 기자

"만해 정신 계승" 동국대 언론동문회 출범

8월 31일, 초대 회장에 남철우
신문·방송 등 동문 언론인 한자리
1회 만해언론인상에 김종필 국장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국대 언론동문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남철우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장이 선출됐다.〈사진〉

동국대 언론동문회(회장 남철우)는 8월 31일 서울 동국대 상록원에서 출범식과 '제1회 만해언론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언론동문회는 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를 비롯해 홍보, 언론 유관단체, 방송·영상, 출판·잡지·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모임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남철우 동국대 언론동문회 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

남철우 회장은 "선배의 경험과 후배의 패기가 만나 서로 다른 세대와 매체의 동문들이 연결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며 "만해언론인상을 제정해 만해 스님의 언론 정신을 계승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언론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언론계에 존경받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언론동문회 출범과 함께 제정된 '만해언론인상'의 첫 수상자로는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이 선정됐다. 만해언론인상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언론정신을 계승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언론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1회 만해언론인상을 수상한 김종필 편집국장은 "감격스럽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만해 스님의 생명력이 언론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정진할 때 동국인의 기상을 지속가능하게 추구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항상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 언론에 빛이 되는 길잡이가 돼주길 바란다"며 출범을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격려사에서 "동국대 언론인 모임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며, 만해언론인상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과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경철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김용환 언론정보대학원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노웅래 전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도 동문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동국대 언론동문회는 재학생 10명에게 '동국인언론인발전기금'으로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박지운 기자

5대 종교인 함께 DMZ 걷는다

10월 1~22일, 고성-파주 순례
불교계 실천불교승가회 등 참여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천도교 국내 5대 종교인들이 비무장지대(DMZ)를 함께 걸으며 한반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순례에 나선다.

2026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는 9월 1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DMZ 종교인 생명 평화 순례' 취지와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순례는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강원 고성과 경기 파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순례에는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통일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천도교 소속 종교인 40여 명이 참여한다. 일반인도 구간별 순례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9월 30일 고성 명파아트호텔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양구·화천·철원·연천을 거쳐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 약 410㎞를 걷는다.

매년 순례에 참여해 온 실천불교승가회 소속 장적 스님은 이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 때마다 아픔이 치유되길 발원하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종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031-941-6223 이현희 기자

"1박 2일 팔관재계로 심신 청정히"

봉녕사, 제5회 팔관재계 법회
8월 29~30일, 총 31명 동참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 여덟 가지 계를 지키며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장이 마련됐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남성(우바새) 6명과 여성(우바이) 25명 총 31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출가자의 삶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5회 연속 참가자와 여성출가학교 출신 청년 불자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첫날 삼귀의계와 오계 수계식에 이어 팔관재계의 의미를 되새기는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대적광전에서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을 계사로 팔관재계 수계식이 봉행됐다. 적연 스님은 법문에서 "1박 2일 동안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묵언 수행에 들어갔다. 저녁예불과 '우바새계경' 독송에 이어 도생 스님의 지도 아래 선명상에도 참여했다. 이튿날 오전 4시부터는 새벽예불과 '생명의 소리 108배'를 하고 아침운력으로 경내 풀을 뽑으며 공덕행을 실천했다. 이후 수행과정에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누며 1박 2일간의 팔관재계 수행을 회향했다.

참가자들은 "본연의 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호흡하는 내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태하고 무질서했던 마음을 비우고 계를 통해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종무원, 연등 모연 '자비나눔'

8월 31일, 조계종 종무원조합
동행에 659만 · 재단에 500만원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김추연)이 정성으로 마련한 기금을 취약계층과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종무원조합은 8월 31일 서울 전법회관 사무처에서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에게 '위기가정 생계 지원' 기금 659만 1000원을 기탁했다.〈사진〉 기금은 종무원들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을 제작해 모연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추연 위원장은 "올해는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여러 사회복지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오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껏 모아주신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오 스님과 김추연 종무원조합 위원장, 유대호 총무부장, 최낙훈 총무차장이 참석했다.

같은 날 종무원조합은 서울 전법회관 6층 임원실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을 예방하고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난치병 어린이의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륜 스님은 "마음을 내어 동참해 주신 종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종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치료를 이어가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종무원조합은 "앞으로도 난치병 어린이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사업에 꾸준히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전법 동반자 될 것"

조계종 '신도조직 임원연수'
교구 · 신도단체 160여 명 참석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전국 신도조직 임원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1박 2일 연수를 개최했다.

포교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2026년 신도조직 임원연수'를 진행했다.〈사진〉

그동안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관했던 신도조직 임원연수를 올해부터 총무원이 주최하고 포교부와 중앙신도회가 주관하는 종단 교육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24개 교구신도회와 16개 신도단체의 임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개회사에서 "신도조직은 단순히 종단을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신행을 돕는 전법의 동반자"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해진 신행의 형태에 맞춰 신도조직도 더욱 활력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날 입재식 후 수행과 종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법문과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포교부장 정무 스님의 '불교 5대 수행법', 김영일 전 총무원 총무차장의 '종단 이해와 신도 임원의 자세', 각성 스님의 '부처님 번지수가 틀렸슈!'를 주제로 한 불교문화 스토리텔링이 연이어 진행됐다.

이어 '행복바라미 작은 음악회'와 '달빛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됐다.

연수 둘째 날에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를 참배하고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법문 후 회향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지운 기자